

2020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분석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2020회계연도 공기업 결산서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김 완 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박 윤 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팀장

최 지 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계사

방 민 식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계사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이중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는「공공기관운영법」제39조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43조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을 수행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위해「공공기관운영법」제12조에 따라 최근 5년간의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¹⁾에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전력을 포함한 36개 공기업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알리오(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006년에 구축한 시스템

1 공기업 재무성과

2020회계연도 36개 전체 공기업의 매출액(영업수익)은 133.4조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6.9조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손익 역시 △6,5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1% 감소하였다. 기타포괄손익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2.7조원↑)하였는데, 이는 주로 부동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의 자산재평가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2.3조원↑)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3년 동안 공기업²⁾ 손익은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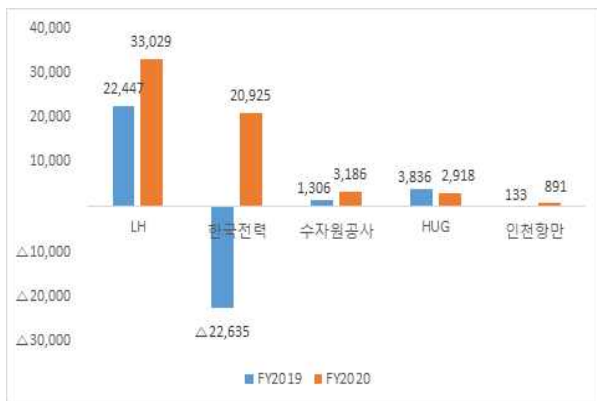
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영업수익 (매출)	1,450,158	1,451,620	1,334,489
영업손익	82,482	72,306	69,082
당기순손익	20,826	13,058	△6,539
총포괄손익	31,693	11,409	18,335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2020회계연도 당기순손익 상위 및 하위 공기업은 다음과 같다.

<당기순손익 상위 공기업>

(단위: 억원)



<당기순손익 하위 공기업>

(단위: 억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2)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9개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주식회사 에스알)는 각각 모회사가 연결하여 재무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합계에서 제외(이하 동일)

2 재무성과의 주요 변동원인

2020회계연도 공기업의 손익은 전년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모두 감소하였다. 2020회계연도 공기업 매출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주택 매출 증가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COVID-19로 인한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철도공사의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11조 7,131억원 감소하였다.

2020회계연도의 당기순손실은 6,5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597억원 감소하였다. 이는 국제 연료가 하락 등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반대로 해외사업손상차손 증가로 한국석유공사의 당기순손실이 심화되었으며 COVID-19로 인해 한국철도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당기순손익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주요 공기업 당기순이익 변동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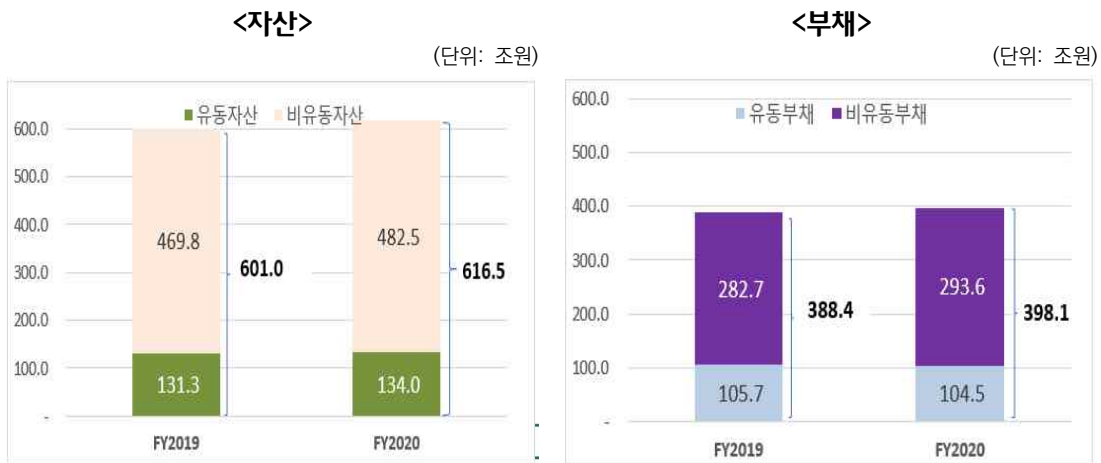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분	기관	당기순이익			내역
		2019	2020	증감	
증가	한국전력	△22,635	20,925	43,560	COVID-19 영향으로 전기판매수익은 감소하였으나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가 크게 감소하여 당기순이익흑자 전환
	LH	22,447	33,029	10,582	분양주택 매출 증가 등 당기순이익 증가
	수자원공사	1,306	3,186	1,881	개발사업 분양매출 증가 등 당기순이익 증가
감소	석유공사	△1,548	△24,392	△22,844	저유가 등으로 인한 해외사업 손상차손·투자기업 지분법 손실 증가로 당기순손실 확대
	철도공사	△469	△13,427	△12,958	COVID-19 영향으로 운송수송 감소 등 영업손실 증가, 용산환급가산금 기저효과 등으로 당기순손실 확대
	인천국제공항	8,634	△4,229	△12,863	COVID-19 영향으로 운항 및 여객 수요 감소, 임대료 감면 등으로 영업손실 기록, 팬데믹으로 영업권 및 일부자산 손상인식 등 당기순이익 적자전환

출처: 기획재정부, 2020회계연도 기관 제출 결산보고자료

3 공기업 재무상태

2020회계연도 공기업 자산은 616.5조원으로 전년 대비 15.4조원 증가(2.6%)하였고, 부채는 398.1조원으로 전년 대비 9.7조원 증가(2.5%)하였다. 공기업 자산은 주로 전력·도로 등 에너지·운송부문 시설투자와 임대주택건설 등으로, 에너지 부문의 전력설비 증가 및 부동산부문의 임대자산 증가, 교통수송 부문의 자산재평가 등의 요인으로 증가하였다. 부채 또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차입 및 사채발행 등으로 증가하였다.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공기업 자산 구성은 발전 설비 등 유형자산(40.7%)과 임대주택 등 투자부동산(18.6%) 분양토지 등 재고자산(14.0%) 등이며, 부채는 금융부채(62.1%)와 장단기매입채무(12.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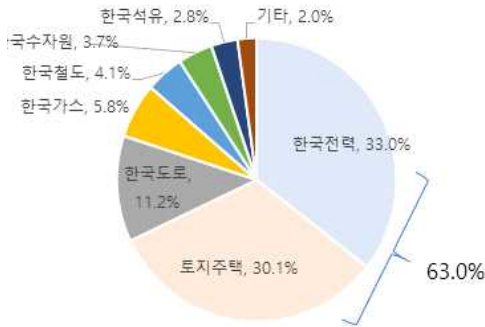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공기업의 전체 자산과 부채는 일부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설비와 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투자부동산 등이 전체 공기업 자산의 63.0%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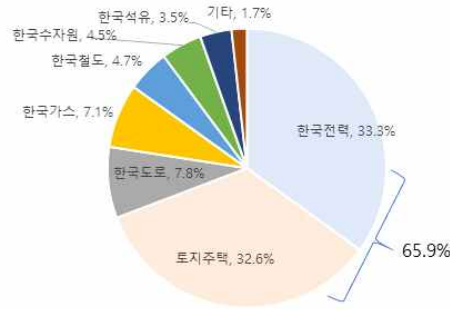
<공기업 기관별 자산 구성>

(단위: %)



<공기업 기관별 부채 구성>

(단위: %)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4 재무상태의 주요 변동원인

1. 자산·부채 주요 증감

2020회계연도 공기업의 자산은 전년 대비 15.4조원 증가하였다. COVID-19로 인해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의 자산이 감소하였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자 증가에 따른 임대주택 증가, 한국전력공사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등 유형자산이 증가한 영향이다.

2020회계연도 공기업의 부채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부정책 수행을 위한 채권 발행,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설비 투자 및 원전해체충당부채 설정 등으로 전년 대비 9.7조원 증가하였다.

<주요 공기업 자산 변동원인>

(단위: 조원)

구분	기관	자산			내역
		2019	2020	증감	
증가	LH	176.5	185.3	8.8	투자증가로 분양주택 재고자산 증가(1조 5,312억원) 및 건설 및 매입 임대주택 증가로 임대자산(투자부동산) 지속적 증가(4조 9,526억원)
	한국전력	197.6	203.1	5.5	한수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전력설비 건설 및 보강 등으로 유형자산 증가(4조 76억원), 보유자금 일시적 운용으로 현금 및 유동금융자산 증가(1조 4,332억원)
	도로공사	65.8	69.2	3.4	서울-세종, 파주-포천 노선 착공으로 개발 중인무형자산 증가(1조 7,580억원) 및 밀양

구분	기관	자산			내역
		2019	2020	증감	
					-울산, 도로개량 완성·대체로 사용수익기부 자산 등 유료도로관리권 증가(1조 4,295억원) 등 무형자산 증가(3조 1,854억원)
	철도공사	22.7	25.3	2.6	COVID-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현금 및 매출채권이 감소(5,656억원)하였으나, 토지재평가 등 유형자산 증가(2조 9,033억원)로 전년 대비 자산 증가
감소	가스공사	39.3	35.9	△3.4	감가상각 및 해외사업 자산손상 등 유·무형 자산 감소(1조 3,953억원), LNG구매단가 하락 등 재고자산 감소(1조 2,550억원), 판매 단가 하락으로 매출채권 감소(8,800억원)
	석유공사	18.7	17.5	△1.2	감가상각 및 자산손상 등 석유가스개발자산 감소(1조 1,804억원), 토지재평가로 인한 증가(6,439억원)
	광물자원	3.9	3.0	△0.9	COVID-19로 인한 암바토비 니켈광산 조업 중단 및 생산계획 변경 등으로 암바토비프로젝트 손상차손 및 지분법손실 인식, 암바토비 재고자산 감소 등

출처: 기획재정부, 2020회계연도 기관 제출 결산보고자료

2. 차입금 및 사채

2020회계연도 공기업의 차입금 및 사채는 전년 대비 7.2조원 증가한 245.8조원으로 부채의 많은 부분(61.7%)을 차지한다. 차입금의존도 또한 39.9%로 민간 29.48%에 비하여 높은 수준인데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고 민간에 비해 자본조달이 용이한 공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부문의 공기업 차입금 및 사채는 117.5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증가하였다. 한국전력공사의 신고리원전 5-6호기, 전력설비 투자 등 건설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하면서 차입금 및 사채가 1.8조원 증가하였고,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도 투자 및 운전자금 충당을 위한 추가차입으로 각각 0.4조원 증가하였다. 가스공사는 COVID-19 경기침체에 따른 공장가동률 저하 등으로 운전자금이 감소하여 차입금 및 사채가 2.2조원 감소하였다. 에너지 부문의 증가 폭은 축소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부동산부문 공기업의 차입금 및 사채는 69.0조원으로 전년 대비 2.6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용자금 증가 및 정부정책수행을 위한 사채 발행 증가 등에 기인한다.

교통·수송부문도 58.5조원으로 전년 대비 3.9조원 증가하였는데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투자 재원마련을 위한 사채 발행 1.9조원 증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4단계 사업비 집행, 배당금지급 등을 위한 사채 1.3조원 증가 등의 영향이다.

<공기업 차입금 및 사채 규모>

(단위: 조원)



<차입금의존도³⁾ 추이 민간 비교>

(단위: %)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및 한국은행, 「2019년 기업경영분석」 (2020.10.)

3. 사후처리, 복구, 정화비용을 위한 충당부채 현황 분석

공기업은 보유한 자산의 추후 처리·복구·정화비용에 대하여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2020회계연도 사후처리, 복구, 정화비용을 위한 충당부채 설정액은 37.6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약 9.5%에 해당한다. 한수원의 원전해체 충당부채 20.1조원, LH의 원가충당부채 14.5조원, 석유공사의 유정시설 종료시점의 복구·정화비용에 대한 충당부채 2.4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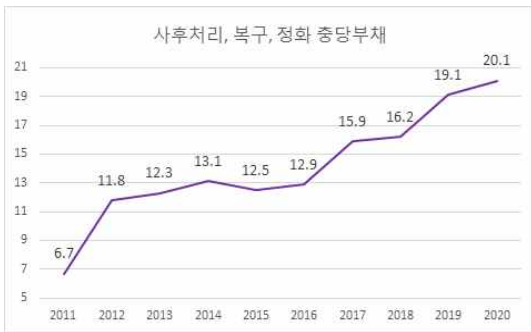
■ 한수원 원전충당부채

우리나라에는 총26기의 원전 중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제외한 24기가 가동 중에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전을 포함한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사후 해체·복구 및 사용후 핵연료처리 등을 위해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원전해체예상시점의 소요비용(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충당부채를 산출하는데 2020회계연도 말 잔액은 20.1조원으로 전년 대비 1.0조원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3) 차입금 의존도 = (차입금+사채)/총자본, 2020회계연도 민간 차입금의존도는 2019년 수치 적용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총당부채>
(단위: 조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단가 추이⁴⁾>



	중·저준위 방폐물 /드럼당	사용후 핵연료 적립/드럼당	원전해체 비용 /호기당
'1506~	12,190천원	(경수로) 319,814천원/다발 (중수로) 13,202천원/다발	6,437억원
'17.12~	13,730천원	상동	7,515억원
'19.12	15,190천원	상동	8,129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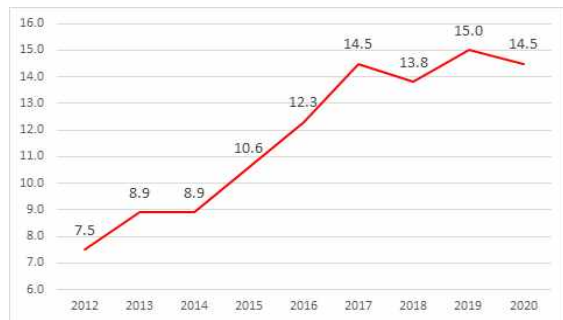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 LH 원가총당부채

LH는 건설형 공사계약의 사업 준공 시 향후 추가로 발생할 예상비용을 추정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할 유동총당부채로 설정하고 있다. 2020회계연도 말 설정액은 14.5조원으로 전년 대비 0.5조원 감소하였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LH 원가총당부채>

(단위: 조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4)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5 정부출자금 및 배당금

2020회계연도 공기업에 대한 정부출자금은 110.8조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출자금의 57.8%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고속도로 사업 및 임대주택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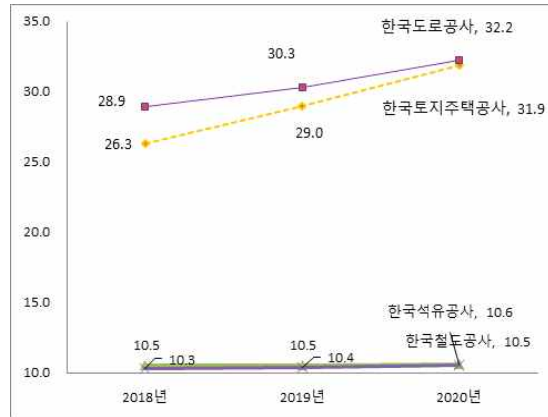
<공기업 자본금 및 정부출자금>

(단위: 조원)



<정부출자금 주요 기관>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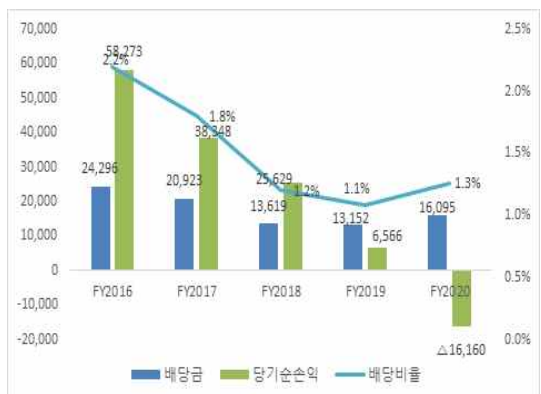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2020회계연도 배당금은 전년 대비 22.4% 증가한 1조 6,095억원으로 COVID-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4개 감소한 9개 기관이 배당을 실시하였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배당금이 증가하여 배당총액은 전년 대비 2,943억원 증가하였다.

<공기업 배당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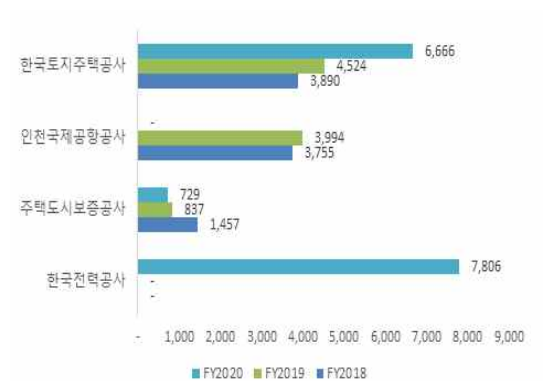
(단위: 억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주요 기관별 배당금 추이>

(단위: 억원)



6 공기업 주요 재무지표

전체 공기업의 2020회계연도 수익성 및 생산성의 경우 지표에 따라 상승과 하락한 부분이 있으며, 안정성의 경우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대부분의 공기업의 경우 COVID-19로 인해 영업손실이 확대되었지만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다. 매출액 순이익률의 경우 저유가 등으로 인해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사업 손상차손 및 투자기업 지분법 손실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4%p 하락하였다.

대표적 안정성지표인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0.4%p 감소하였는데, 부채가 증가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정부출자금 증가 및 자산재평가 등으로 자본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 영업이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자보상비율은 전년 대비 5.8%p 증가한 145.6%를 기록하였다.

부가가치액이 전년 대비 0.9조원 감소하였지만 COVID-19로 인한 매출액 급감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율은 전년 대비 2.1%p 증가한 33.0%이다.

최근 3년 동안 공기업 주요 재무지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 %p)

구분		2018년	2019년 (a)	2020년 (b)	증감 (b-a)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100)	5.7	5.0	5.2	0.2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순손익/매출액×100)	1.4	0.9	△0.5	△1.4
안정성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178.0	182.7	182.3	△0.4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100)	161.6	139.7	145.6	5.8
생산성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액/매출액×100)	29.6	30.9	33.0	2.1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평균)*100)	25.2	24.6	21.9	△2.7
	경제활성화지수 (부가가치액/GDP*100)	2.3	2.3	2.3	-

매출액순이익률은 대체로 민간이 공기업보다 높으며, 민간은 2020회계연도에 상승 전환되었으나 공기업은 하락추세이다. 민간과 공기업간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영업 이익률보다 갭이 큰데, 이는 공기업의 경우 해외사업 또는 유·무형자산의 손상차손 등 영업외손실 발생규모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공기업 수익성 지표 추이〉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매출액 순이익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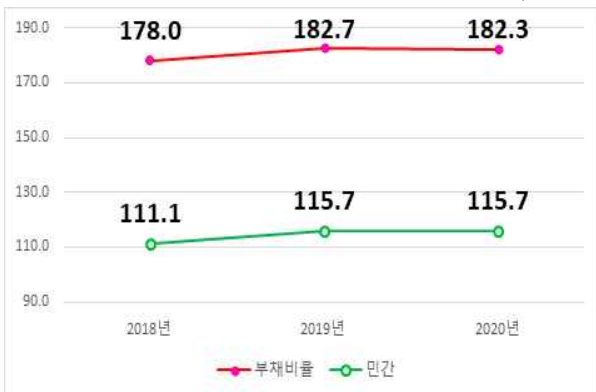
출처: 한국상장사협의회 보도자료⁵⁾ 중 연결기준 주요 재무정보 재구성

2020회계연도 부채비율은 소폭 하락하고, 이자보상비율은 상승하여 공기업의 안정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자본 마련을 회사채 발행이나 차입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공익성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특성으로 민간에 비하여 부채비율은 높고 이자보상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안정성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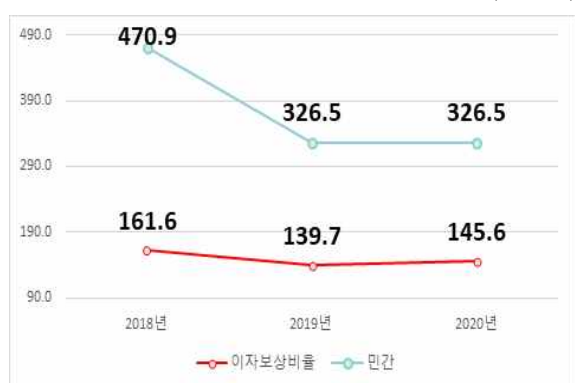
〈부채비율 추이〉

(단위: %)



〈이자보상비율 추이〉

(단위: %)



출처: 한국은행, 「2019년 기업경영분석」(2020.10.)

*2020회계연도 민간 부채비율은 2019회계연도 수치 적용

출처: 한국은행, 「2019년 기업경영분석」(2020.10.)

*2020회계연도 민간 이자보상비율은 2019회계연도 수치 적용

5) 한국상장사협의회, 「2020사업연도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보도자료, 2021. 4.25.

7 2020회계연도 결산 이슈 : COVID-19 영향

2020회계연도는 COVID-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공기업도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운송업과 그랜드코리아레저, 마사회, 강원랜드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의 타격이 컸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

- 자산 12.3조→12.5조 +2.0%, 부채 3.0조→4.1조 +36.1%, 손익 8,634억원→△4,229억원 △149.0%

COVID-19 영향으로 운항 및 여객수요가 대폭 감소하여 항공수익이 감소하였고, COVID-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정책으로 비항공수익도 감소하는 등 영업손실을 기록함. 또한 팬데믹으로 영업권 및 일부자산에서 손상 인식하여 당기순이익 적자전환 하였음. 자산 손상을 인식하였지만 4단계 건설사업 본격화, 항공사 및 입점업체 납부유예 정책시행으로 채권 증가(3,739억원↑), 사업비 집행 부족분 차입 등의 이유로 전체 자산과 부채는 증가함

2. 한국철도공사

- 자산 22.7조→25.3조 +11.5%, 부채 16.3조→18.0조 +10.3%, 손익 △469억원→△1조3,427억원 △2,761.5%

COVID-19로 인해 여객 수요가 급감하였고 전기 용산환급가산금 기저효과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확대됨.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용산토지 등 자산재평가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해 자산이 증가하였고 차입금 증가 등으로 부채도 증가함

3. 그랜드코리아레저

- 자산 0.9조→0.7조 △22.1%, 부채 0.3조→0.2조 △31.5%, 손익 724억원→△643억원 △188.9%

COVID-19 영향 고객감소 및 영업장 휴장으로 손실이 발생하였고 현금 및 금융자산 매각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 충당 재원을 마련함에 따라 자산 감소함. 또한 매출감소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카지노매출액의 10%) 및 개소세, 당기법인세 감소로 부채도 감소함

4. 마사회

- 자산 2.7조→2.2조 △18.5%, 부채 0.1조→0.2조 +29.4%, 손익 1,449억원→△4,368억원 △401.5%

COVID-19 영향 경마장 영업중단 및 발매일수 감소로 적자전환됨. 또한 마권발매금액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경마수득금 감소로 자산은 감소하고 마포부지 매각 선수금 증가로 부채는 증가함

5. 강원랜드

- 자산 4.4조→3.6조 △17.9%, 부채 0.7조→0.4조 △45.2%, 손익 3,346억원→△2,759억원 △182.4%

COVID-19로 카지노 매출 감소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카지노매출액의 10%)·폐광지역개발기금(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25%) 등 매출과 연계된 기금 설정액 감소로 자산 및 부채 감소